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역할*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
The Role of Mothers' Perception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윤서희(Seohee Yoon)¹⁾

성지현(Jihyun Sung)²⁾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illuminate a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perception of father's involvement on the associations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s emotional regulatio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mprised 292 mothers whose children were aged between 4 and 5. The children were attending child 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located in Seoul or Gyeonggi-do province in Korea. The questionnaires on mother's parental efficacy, father's parental involvement, and their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were distributed to mothers through their child 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The results indicated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Although mothers' parenting efficacy had relatively higher effects upon their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than their fathers' involvement, the effect of a fathers' involvement was still significant. In particular, the fathers' involvement in leisure activities moderated the effects of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children's emotional comprehension and regulation(one of the sub-factors of emotional regulation).

* 본 논문은 2013년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

²⁾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ihyun Sung, Dep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110-745, Korea
E-mail : sungjh@skku.edu

Keywords : 아버지 양육참여도(father's involvement), 어머니 양육효능감(mother's parenting efficacy), 유아 정서조절력(child's emotional regulation).

I. 서론

최근 몇 년 간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적극적이고 친밀한 아버지를 지칭하는 ‘프렌디1)’, ‘스칸디 대디2)’와 같은 신조어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양육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과 관심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전국 부권 회복 운동(National Fatherhood Initiative)’이나 ‘전국 아버지 되기 센터(National Center of Fathering)’와 같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부모 교육을 제공하는 단체들이 세계 각지에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Park, 2013), 서울시에서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 아버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다. 여성의 교육 기회가 증대되고 이로 인해 여성들도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어머니 혼자서 자녀 양육을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또한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 되면서 부모 이외에 육아를 책임져줄 사람의 부재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다(Bigner, 1979; Harris &

Morgan, 1991; Kwon,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Lamb, 1975),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참여는 유아 발달의 여러 가지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Carr & Springer, 2010; Lee, 2003). 특히 유아의 사회화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기 자녀의 사회 정서 발달과의 관계가 많이 연구되었다. 아버지 양육 참여는 유아의 지적 발달, 사회적 유능감, 내적인 통제, 공감 능력 등과 관련이 있다는 Fagan과 Inglesias(1999)의 연구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높은 자아 효능감, 높은 내적 통제 능력 등과의 관련성을 제시한 Pleck과 Masciadrelli(2004)의 연구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국내 연구들(Hwang & Moon, 2006; Jung & Choi, 1992; Kim & Lee, 1998; Kim, 2000; Moon, 2000)에서도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자녀의 내적 통제력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 하며, 사회적인 활동성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Chae(2010)는 유아의 정서

1) ‘Friend’와 ‘Daddy’의 합성어로 친구 같은 아버지를 지칭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프렌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87167&cid=472&categoryId=472>>, (2013년 10월 5일 검색)

2) 아버지들의 육아휴직이 보편적이며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북유럽 아버지들과 같은 이미지를 통칭하는 말로 자녀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서적인 교감을 형성하는 아버지들의 유형을 가리킨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스칸디 맘·스칸디 대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5624&cid=733&categoryId=733>>, (2013년 10월 5일 검색)

조절능력이 부모 변인 중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Chi(2007)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생활지도, 가사활동 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 및 자기조절 등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Choi와 Song(201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정서조절 능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정서조절 능력의 하위변인인 정서통제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보고하면서 아버지가 유아와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유아의 정서적인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하여 이를 통해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보다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양육에 대한 참여는 가족 구조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자녀 양육을 조력하여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깊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의미하는 양육효능감은(Perry, Perry, & Rasmussen, 1986) 어머니가 행하는 실제적인 양육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자녀 양육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와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Jhonston & Mash, 198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단순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참여하는지 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지각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배우자의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들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지각을 살펴보았다(Belsky, 1984; Brunelli, Wasserman, Rauh, Alvarado, & Caradallo, 1995; Goldberg, 1990).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해 가지는 부담을 감소시켜주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여준다는 것이 제시되었으며(Kwon, 2009; Lee & Moon, 2011),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여 어머니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다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높은 양육효능감을 보이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Jeon, 1996; Kim & Lee,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유아 발달과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어머니 양육효능감은 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꼽히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전반적인 심리적 또는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Gondoli & Silverberg, 1977; Jackson, 2000), 유아의 사회 정서적 적응 능력 중 자기조절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Park, 2006). 자기조절력의 발달은 정서 조절력의 발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Yang, 200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력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정서조절력은 개인 내적인 감정상태 및 정서를 조절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적응적인 방법

으로 정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Kopp, 1989; Thompson, 1994). 이는 결국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Shields와 Cicchetti(1997)는 정서조절력을 크게 두 가지 하위 변인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로, 분노를 유발하거나 공격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적인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공격적인 상황에서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는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은 유아기 공격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Gilliom, Shaw, Beck, Schonberg, & Lukon, 2002; Rydell, Berlin, & Bohlin, 2003). 즉,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행동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정서조절 및 이해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불안정/부정적 요인과는 달리 일반적인 상황 전반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Denham(1998)과 Saarni(1999)는 유아기 정서 조절은 유아의 일반적인 사회-정서적 유능성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감정이입이 정서조절 및 이해 요인과 관련이 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사회 적응적인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은 물론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유발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Parker & Asher, 1987).

특히 최근 들어 점차 많은 유아들이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어떠한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정서조절에 실패함으로써

부적응이나 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이 높으며(Hwang, Yoon, Kang, Sung, & Hwang, 2002; Lee, Shin, Jeon, & Park, 2004), 심한 경우 이후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폭력성, 공격성을 조절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Leve, Kim, & Pears, 2005) 정서조절력의 발달은 사회적 이슈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정서조절력은 생의 초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데(Kopp, 1989), 특히 4~6세의 유아들은 정서를 조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고 내적으로 발생하는 정서와 외적으로 표출 가능한 정서를 구분하여 정서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Gnepp & Hess, 1986; Harris & Gross, 1988). 유아기에 정서조절력을 잘 형성했을 경우 이후 성인기에 보다 신중하고 분별력을 가지며, 협동적이고 유능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높다(Shin, 2004). 정서조절력은 유아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정서조절력의 발달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행동과, 이를 위해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발달된다(Eisenberg, Smith, Sadovsky, & Spinrad, 2004). 특히 유아들이 가장 많이 상호작용하며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어머니는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유아의 정서와 행동을 지도하고 모델링해주고 교정해주기 때문에 유아의 정서조절력의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Jung, 2005; Kim, 200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정서조절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Gralinski & Kopp, 1993; Park, 2006; Yang, 200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인지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보다 적절하고 융통성 있으며 일관된 양육 행동을 하는 것이 보고되었다(Mondell & Tyler, 1981; Moon, 1999).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 태도나 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 태도나 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서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정의 유아는 정서조절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Lee & Jung, 2002), 반면에 어머니가 냉정하고 무반응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유아들은 분노를 더 많이 표출하고 낮은 정서조절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Gottman & Katz, 198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지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도 높아진다는 것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선행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사람의 자녀 양육이 유아의 정서조절력과의 관련성 또는 그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양육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며 각각의 양육 방식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고(Han & Shim, 2011),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 양육참여도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 연령 그리고 가족의 소득과 같은 배경변인에 따라라도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어머니들이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지며(Choi, 2005; Jeon & Lee, 1999; Song, Song, & Kim, 2007) 아버지의 양육참여 또한 높다고 보고하였다(Kim, 2000; Lee & Moon, 2011).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 간 의견이 분분한데, 일부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Salonen et al., 2009; Song, Song, & Kim, 2007), 일부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 양육효능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Lee & Moon, 2011; Yang & Choi, 2011).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Kim, 2000; Lee & Moon, 2011; Volling & Belsky, 1991). 이렇듯 부모의 배경 변인에 따라서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달라지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분석하기에 앞서 배경 변인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양육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 양육시간은 어머니에 비해서 훨씬 적고(Adamsons & Buehler, 2007; Finley, Mira, & Schwartz, 2008; Heo, 2008; Son, 2005; Song, 2011), 어머니가 취업을 한 가정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가정에서 주로 어머니들이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Ahn, 2013).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달리 의무적으로 양육에 참여하기보다는 자녀와 놀아주는 형태로 참여하기 때

문에(Seo & Lee, 1999) 자녀 양육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부모의 정서적인 지원과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유아들이 어떻게 정서를 조절해야하는지를 안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어왔지만(Parke, 1994),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전히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유아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양육에, 그리고 자녀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Lamb(1975)은 가족 구조 내에서 아버지-어머니-자녀의 삼원적(triadic)인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삼원적 구조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이원적인 상호작용에 제 3의 구성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Lewis & Feiring, 1981; Parke, Power, & Gottman, 1979). 이를 적용하면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어머니에게 정서적, 신체적 지원을 해주기에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영향을 받아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상호작용의 질이 변화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과 가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그만큼의 정신적, 물리적 여유가 생기면서 어머니-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다(Chang, Kim, Kim, & Lee, 2000).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로 인해 형성된 아버지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자녀의 긍정적인 사회, 정서발달로 이어져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인 부부관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Sevigny & Loutzenhiser, 2009). 이러한 가족 내 삼원적 구조 이론과 앞서 살펴본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1)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유아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역할, 그리고 2)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유아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역할과 같은 두 가지 모델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주양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인의 영향력이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변인보다 클 것으로 가정하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러한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한 후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과 자녀의 정서조절력의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모의 협력적인 양육의 중요성을 밝히고, 보다 긍정적인 유아의 발달을 이끌 수 있는 양육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유아 정서조절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버지의 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유아 정서조절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어머니 양육효능감,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 유아의 정서조절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력과 그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 만 4, 5세 유아의 어머니 292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를 위해 대상 연령 유아의 어머니 3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 하였으며 그 중 304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약 87%) 그 중 불성실한 응답 또는 무응답, 한부모 가정과 같은 연구조건과 맞지 않는 12부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 292)

Participant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Child	Age	4	181(62.0)
		5	111(38.0)
	Sex	Male	145(49.7)
		Female	147(50.3)
Father	Age	25 ~ 30	1(0.3)
		30 ~ 35	41(14.0)
		35 ~ 40	117(40.1)
		Over 40	133(45.5)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under	7(2.4)
		High school	61(20.9)
		College	54(18.5)
		University	140(47.9)
	Graduated school and above	30(10.3)	
State of employment	Employed	282(96.6)	
	Unemployed	10(3.4)	
Mother	Age	25 ~ 30	13(4.5)
		30 ~ 35	71(24.3)
		35 ~ 40	148(50.7)
		Over 40	60(20.5)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under	1(0.3)
		High school	83(28.4)
		College	87(29.8)
		University	107(36.6)
	Graduated school and above	14(4.8)	
State of employment	Employed	132(45.2)	
	Unemployed	160(54.8)	
Family	Household income	Below 1,000,000 won	1(0.3)
		1,000,000 ~ 2,000,000 won	3(1.0)
		2,000,000 ~ 3,000,000 won	55(18.8)
		3,000,000 ~ 4,000,000 won	89(30.5)
		Over 4,000,000 won	144(49.3)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 4세가 181명(62.0%), 만 5세가 111명(38.0%) 이었고 평균 연령은 4.38세($SD = .49$)이다. 성별은 남아(49.7%)와 여아(50.3%)가 비슷한 비율로 표집 되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20대부터 40대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나 35~40세 미만(40.1%)과 40세 이상(45.5%)이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었다. 어머니의 연령 또한 다양하게 표집 되었으나 35~40세 미만의 집단(50.7%)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40세 이상 연령 집단(20.5%)이 그 다음으로 많이 분포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모두 대학교 졸업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 아버지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였다.

부모의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아버지(96.6%)는 취업을 한 상태였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취업을 하지 않은 어머니의 수가 조금 더 많았지만(54.8%) 많은 수의 어머니들이 일을 하면서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는 것(45.2%)을 알 수 있었다.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대체적으로 중산층 이상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정서조절력의 측정을 위해서 어머니가 다음에 제시된 도구들에 답하도록 하였다.

1)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Bigner(1979), Baruch와 Barnett(1981), Lamb(1975)의 연구를 토대로 아버지 양육참여

도 검사 도구를 제작한 Choi(1992)의 도구를 Kim(200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Choi(1992)의 도구는 원래 초등학교 5, 6학년용 대상으로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를 묻는 질문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아버지 양육참여도 척도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된 것으로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컴퓨터 게임과 관련된 여가활동의 1문항과 숙제지도나 학교에 가지고 갈 물건을 챙기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학습지도관련 4문항이 제외되었다. Kim(2005)의 척도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참여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채점된다. 본 연구자가 산출한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2) 어머니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측정을 위해서는 Meunier와 Roskam(2009)의 'Echelle Globale du Sentiment de Competence Parentals(EGSCP)'를 Sung과 Baek(2011)이 1~7세 영유아를 자녀로 둔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타당화한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K-EGSCP)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양육 상황에 따른 부모의 영역별 양육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다. 영역별 양육효능감은 애정, 일상체계 조직, 훈육, 놀이, 교육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지구조는 부모의 책임과 결과통제의 2가지 요인으로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구조를 제외한 영역별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문항들 총 22문항만을 사용하여 어머니 양육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Likert식 6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였고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정서조절력

유아의 정서조절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hields와 Cicchetti(1995)가 개발한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Kim(2007)이 번안한 것을 H. Park(2011)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이며, 정서조절 및 이해(9문항)와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15문항)의 두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조절 및 이해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고, 불안정/부정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유발 및 공격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변화에 따라 정서적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부정적 요인의 점수는 역채점하여 분석하여, 높은 점수일수록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을 능숙하게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유아의 어머니가 응답하였고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연구과정과 관찰척도의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문항 작성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 5명을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 5세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 3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7곳을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대상 연령의 학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한 350부의 설문지 중 무응답이나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292부의 설문지만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표집된 자료들의 일반적인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변인들 간 상대적 영향력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고,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분석

1.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정서조절력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 양육효능감, 아버지 양육참여도 및 유아의 정서조절력 각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가족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 3.95, p < .05$).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 양육효능감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 소득에 따른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후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각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집단은 300만 원 미만인 집단과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인 집단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가족의 수입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대한 차이는 유

<Table 2> Differences i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ccording to mothers' background variables

Variables	Classification (n)	Parenting efficacy			Emotional regulation		
		M	SD	F	M	SD	F
Age	Under 35 (84)	3.77	15.57		3.76	9.67	
	35~40 (148)	3.86	12.95	.83	3.82	10.26	.95
	Over 40 (60)	3.87	13.09		3.84	9.1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under (84)	3.75	16.35		3.77	10.82	
	College or university (194)	3.86	12.40	1.74	3.82	9.46	.57
	Graduate school and above (14)	3.97	14.37		3.75	9.60	
Household income	Under 3,000,000 won (59)	3.74 ^c	16.47		3.83	10.58	
	3,000,000 ~ 4,000,000 won (89)	3.75 ^c	12.01	3.95*	3.77	9.80	.49
	Over 4,000,000 won (144)	3.92 ^{ab}	13.30		3.82	9.64	

* $p < .05$.

^{abc}: between-group differences.

<Table 3> Differences in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and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ccording to fathers' background variables

Variables	Classification (n)	Fathers' involvement			Emotional regulation		
		M	SD	F	M	SD	F
Age	Under 35 (42)	3.52	14.60		4.16	10.20	
	35~40 (117)	3.47	17.20	.11	4.11	9.47	.85
	Over 40 (133)	3.50	16.65		4.18	10.1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under (68)	3.28 ^{bc}	16.88		4.12	10.41	
	College or university (194)	3.53 ^a	16.54	5.18**	4.16	9.74	.23
	Graduate school and above (30)	3.68 ^a	13.25		4.15	9.62	
Household income	Under 3,000,000 won (59)	3.32 ^c	17.93		3.83	10.58	
	3,000,000 ~ 4,000,000 won (89)	3.48	16.11	3.08*	3.77	9.80	.49
	Over 4,000,000 won (144)	3.57 ^a	15.99		3.82	9.64	

* $p < .05$. ** $p < .01$.

^{abc}: between-group differences.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 및 유아의 정서조절력의 차이

아버지 배경변인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도

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버지 양육참여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5.18, p < .01$). 이에 대한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졸 이하 집단은 전문대졸 이상 대학교졸 이하 집단과 대학원졸 이상 집단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또한 가족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08, p < .05$). 즉, 가족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도 높았다.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00만 원 미만 소득 집단과 400만 원 이상 소득 집단 간에 유의한 집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가족의 수입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대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 및 유아의 정서조절력의 상관관계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 및 유아의 정서조절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은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r = .35, p < .01$)와 어머니 양육효능감($r = .57, p < .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

버지의 양육참여도($r = .46, p < .01$)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의 하위 요인들 간에도 $p < .01$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결과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 두 변인들을 통제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정서조절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이들 변인간의 관계에서의 상관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교육수준과 가족의 소득 수준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회귀분석에서는 이 두 변인에 대한 통제 없이 살펴보았다.

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역할

유아의 정서조절력과 어머니 양육효능감과의 관계가 아버지 양육참여도와의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Table 4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론에서 제시한 두 가지 모델 중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력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역할을

<Table 4> The correlations and partial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 = 292)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Mothers' parenting efficacy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Mothers' parenting efficacy	.46** (.44**)	
Child emotional regulation	.35** (.35**)	.57** (.58**)

Note. Values reported in parentheses are partial correlations controlling for 2 covariates, including father's education and house income.

** $p < .01$.

<Table 5>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perception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in relations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emotional comprehension and regulation (N = 292)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Emotional comprehension and regulation ³⁾					
		level 1		level 2		level 3	
		B	β	B	β	B	β
Mothers' parenting efficacy(A)		.52	.52***	.38	.38***	.38	.38***
Fathers' involvement(B)				.30	.29***	.29	.29***
A×B						.05	.05
F		100.58***		68.24***		45.73***	
R ²		.273		.338		.340	
ΔR^2		.273***		.065***		.002	

***p < .001.

조절변인으로 설정하는 모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 앞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정서조절력에 대한 영향력을 정서조절의 하위변인별로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개의 하위 변인 중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력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고($\beta = .04, n.s$) 유아의 정서조절 및 이해에서만 유의한 결과($\beta = .21, p = .001$)가 나타났으므로 유아의 정서조절력 중 하위변인인 '정서조절 및 이해' 변인을 중심으로 조절효과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것처럼 독립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설명력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서조절력의 하위 변인 중 정서조절 및 이해에서는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도가 나타났지만 정서조절력 변인의 전체점수나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에

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정서조절력의 하위 변인 중 정서조절 및 이해에 대해서만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는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력의 하위변인인 정서조절 및 이해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가지는 조절효과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유아 정서조절 및 이해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투입한 1단계에서의 설명력은 27.3%로 나타났고($\beta = .52, p < .001$), 아버지 양육참여도($\beta = .29, p < .001$)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단계에서의 설명력은 33.8%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설명력은 34%로 나타났지만 R²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 정서

3) Shields와 Cicchetti(1995)가 개발한 원칙도(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의 하위변인 명은 Emotion Regulation(정서조절)이나 종속 변인명인 정서조절력(emotional regulation)과 유사하여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하위 변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정서조절 및 이해(emotional comprehension and regulation)로 수정하였다.

<Table 6> Moderating effects of fathers' leisure involvement in child care in relations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emotional comprehension and regulation (N = 292)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Emotional comprehension and regulation					
		level 1		level 2		level 3	
		B	β	B	β	B	β
Mothers' parenting efficacy(A)	.52	.52***	.42	.42***	.42	.42***	
Fathers' leisure involvement(B)			.23	.23***	.22	.22***	
A×B					.10	.10*	
F		100.58***		61.96***		43.15***	
R ²		.273		.317		.327	
Δ R ²		.273***		.044***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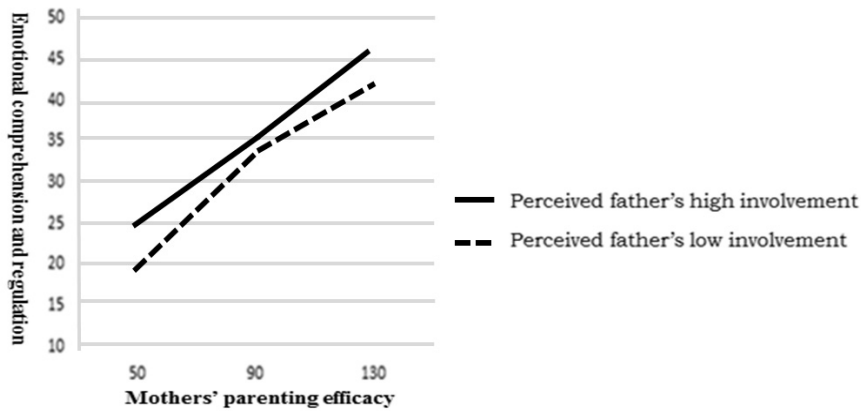
* $p < .05$. *** $p < .001$.

조절 및 이해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총체적으로 모든 영역에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아버지가 어떤 영역에 자녀 양육을 참여하는 것이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 및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각 하위요인인 여가활동 참여도, 생활지도 참여도, 가사활동 참여도로 나누어 각 하위요인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자녀 양육의 어떤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유아 정서조절 및 이해 간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6에 제시된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유아 정서조절 및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버지 여가활동 참여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아버지 여가활

동 참여도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최종 단계 모형에서 아버지 여가활동 참여도($\beta = .22, p < .001$)의 주효과, 어머니 양육참여도와 아버지 여가활동 참여도의 상호작용 효과($\beta = .10, p < .05$)가 유아의 정서조절 및 이해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 및 이해의 관계가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버지 여가활동 참여도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아버지 여가활동 참여도의 상, 하 집단 별로 어머니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 및 이해 간 관계를 비교하였다.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 점수 분포에서 상위 50%를 상 집단으로, 하위 50%를 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은 집단($\beta = .50, p < .001$)과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낮은 집단($\beta = .35, p < .001$)의 경우 모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 및 이해에 미치는



〈Figure 1〉 The interaction effect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fathers'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ren's emotional comprehension and regulation

영향이 유의미했다. 이에 대한 방향성은 Figure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자신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한다. 이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자녀 양육참여도가 달라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동일하다(Kim, 2000; Lee & Moon, 2011; Volling & Belsky, 1991).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고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모두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

의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고 밝힌 연구결과(Jeon & Lee, 1999; Song, Song, & Kim, 2007)와 가족의 수입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의 정적인 상관을 밝힌 연구와 동일하며,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한다는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한다(Kim, 2000; Lee & Moon, 2011). 즉,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아버지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과 같은 배경변인에 따라 유아 정서조절력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배경변인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더 관련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그리고 유아의 정서조절력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력 및 자기조절 능력과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준 연구들(Nam, 2004; M. Park, 2011; Park, 2006)과 같은 맥락이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살펴본 Cho(2012)와 Kim(2009)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들 중 정서조절력과 관련된 변인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것과도 일치한다.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Ahn, 2001; Kim, 2011; Kim, 2005; Luster & Kain, 1987; Moon, 1999), 이러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정서조절력과도 관련이 있는데(Park, 2013; Seo & Lee, 2008),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유능감을 가지면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는 유아의 정서표현이나 내적인 정서통제의 발달을 도와주어 높은 정서조절력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사이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이는 배우자의 양육에 대한 지지가 양육효능감을 높여준다는 연구들(Krishnakumar & Buehler, 2000; Kwon, 2009; Twenge, Campbell, & Foster, 2003)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들(Kim, 2005; Kwon, 2009)과 유사한 결과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정서조절력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Park(2012)와 Yoon(2010)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양

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자녀의 내적통제력이 높아진다는 Kim과 Lee(1998)의 연구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력 간의 정적 상관을 밝힌 Chae(2010)의 연구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하위 요인 전체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제시한 Choi와 Song(201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유아와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Roopnarine, Krishnakumar, Metindogan과 Evans(2006)가 밝힌 것과 같이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서 활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탐험적인 활동에서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아버지가 다양한 활동을 자녀와 함께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자녀를 격려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자녀의 감정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Rinaldi & Howe, 2012)는 연구결과도 아버지 양육참여와 유아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뒷받침한다. 즉, 아버지가 자녀와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보다 대범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주목할 만한 변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아버지가 자녀와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의 하위변인인 정서조절 및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를 가진다. 이는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Kim, 2011), 아버지의 여가활동의 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줄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했다는 연구(Lee & Min, 2007)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 다른 방

식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데, 아버지는 주로 퇴근 후나 주말에 주로 행해지는 여가성을 띤 활동에 많이 참여한다(Ahn, 2013). 유아의 정서 조절의 하위변인인 정서조절 및 이해는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했던 것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들의 적응 능력과 사회성간의 관계에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Kim과 Lee (1998)의 연구에서 아버지가 자녀와의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자녀의 사회적 활동성이 높으며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아기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정서적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Lee와 Han(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Choi와 Song(2014)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여가활동, 생활지도참여, 인지적 성취지도가 정서통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아버지가 참여할 수 있는 자녀 양육의 여러 영역 중에서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조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머니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양육 참여로 인식되며 결론적으로 유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아버지가 자녀와 여가활동을 함께 즐기는 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어머니가 육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자녀와의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들은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되고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자녀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버지의

이러한 자녀와 양육에 대한 이해는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배우자를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의 양육자로 인식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아버지 양육참여도는 어머니가 지각한 정도를 어머니가 평정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양육함에 있어서 느끼는 주관적인 참여 정도로서 양육효능감과 어느 정도 공분산(covariance) 관계가 있어 조절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대상 어머니들 중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조절 하위요인 중 가사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참여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정서조절의 또 다른 하위요인인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정서조절력의 하위영역 전체를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수록 자녀가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 Choi와 Song(201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Cho와 Chung(200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만이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행동과 정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능력에 대한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유아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버지와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지도가 자녀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영역 중 여가활동참여도만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연구 대상이 비취업모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연구대상 아버지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보다는 여가활동

과 같은 단편적인 양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여가활동과 같은 상황에서는 유아가 분노를 경험하거나 공격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아의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이나 정서처리에 필요한 아버지의 지도나 상호작용이 적어 조절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서 표집이 이루어져 한 지역에 국한된 표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참여한 어머니 중 비취업모의 비율이 취업모의 비율보다 컸는데 이는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게 된 원인일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표집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로 측정하여 어머니가 대신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아버지 스스로가 지각한 양육참여 정도와 어머니가 지각한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보고한 양육참여도도 연구에 포함시켜 연구를 한다면 더 풍부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같은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신념도 연구하여 아버지 양육이 배우자나 자녀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 양육참여를 더욱 질 높은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또한 중요

한 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배우자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원체계임을 제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 및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가족 전체의 기능적인 시각에서 변인들을 연구하여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가 가져오는 가족 전체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시사점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Adamsons, K., & Buehler, C. (2007). Mothering versus fathering versus parenting measurement equivalence in parenting measures. *Parenting-science and Practice*, 7(3), 271-303.
- Ahn, J. Y. (2001).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Ahn, S. M. (2013).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tim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uch, G. K., & Barnett, R. (1986).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and children's sex role attitudes. *Child Development*, 57, 1211-1223.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igner, J. J. (1979). *Parent-child relations*. New York, NY: Macmillan Publishing.
- Brunelli, S. A., Wasserman, G. A., Rauh, V. A., Alvarado, L. E., & Caradallo, L. R. (1995). Mother's report of paternal support: Associations with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Merrill-Parlmer Quarterly, 41*(2), 152-171.
- Carr, D., & Springer, K. (2010). Advances in families and health research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743-781.
- Chae, Y. M. (2010). Young children's emotion control and social ability according to parenting attitude. *The Association of Young Children Studies, 13*, 117-132.
- Chang, J. H., Kim, T. S., Kim, H. J., & Lee, H. J. (2000). *A study on parental education programs: The status of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for fathers*. Seoul: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 Chi, S. H. (2007). Relations between rates of fathers participating in child-rearing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yeongin, Korea.
- Cho, B. W. (2012). Study on dependence of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o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verbal control style. *Association for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2), 133-157.
- Choi, H. S. (2005). The mediational role of Kore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The causal relations model of parenting behavior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6*(6), 351-365.
- Cho, J. E., & Chung, O. B.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s and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1*(3), 135-155.
- Choi, K. S. (199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etency of child and the child 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 of fath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M. S., & Song, S. O. (2014). The effects of the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peer competence according to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5*(1), 313-332.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ew York: Guilford Press.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Smith, C. L., Sadovsky, A., & Spinrad, T. L. (2004). Effortful control: Relational with emotion regulation, adjustment, and socialization in childhood. In R. F. Baumerister & K. D. Vohs (Eds.), *Handbooks of self-regulate 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pp. 259-282). New York, NY: Guilford Press.
- Fagan, J., & Inglesias, A. (1999). Father involvement program effects on fathers, father

- figures, and their head start children: A quasi-experimental stud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4, 243-269.
- Finley, G. E., Mira, S. D., & Schwartz, S. J. (2008). Perceived paternal and maternal involvement: Factor structures, mean differences, and parental roles. *Fathering*, 6(1), 62-81.
- Gilliom, M., Shaw, D. S., Beck, J. E., Schonberg, M. A., & Lukon, J. L. (2002). Anger regulation in disadvantaged preschool boys: Strategies, antecedents, and the development of self-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222-235.
- Gnepp, J., & Hess, D. L.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verbal and facial dis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22(1), 103-108.
- Goldberg, W. A. (1990). Marital quality, parental personality and spousal agreement about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for children. *Merril-Parlmer Quarterly*, 36, 531-556.
- Gondoli, D. M., & Silverberg, S. B. (197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61-868.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Gralinski, J. H., & Kopp, C. B. (1993). Every rules for behavior: Mothers' requests to young children. *Development of Psychology*, 10(3), 243-268.
- Han, J. H., & Shim, M. K. (2011).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ir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Journal of Life-Span Studies*, 1(1), 19-31.
- Harris, K. M., & Morgan, S. P. (1991). Fathers, sons, and daughters: Differential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3), 531-544.
- Harris, P. L., & Gross, D.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real and apparent emotion. In J. W. Astington, P. L. Harris, & D. R. Olson (Eds.), *Developing theories of mind* (pp. 295-314).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o, S. Y. (2008). Research on time use for housework of women and men in double income households.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24(3), 177-210.
- Hwang, H. J., Yoon, M. H., Kang, S. B., Sung, N. W., & Hwang, H. S. (2002). The development of a diagnostic test for preschool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2(1), 73-89.
- Hwang, Y. M., & Moon, H. J. (2006). Peer acceptance in relation to children's temperament, maternal self-efficacy, and paternal child rearing involve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2), 83-91.
- Jackson, A. P. (2000). Maternal self-efficacy and children's influence on stress and parenting among single black mothers in poverty. *Journal of Family*, 21(1), 3-16.
- Jeon, I. O., & Lee, K. O. (1999). The effects of mother-related factors on the self-efficacy of young children.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169-187.
- Jeon, Y. J. (1996). The relationships among role

- conflict, coping strategy,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dual-career wiv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Jho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2*, 614-623.
- Jung, E. J. (2005). A study on variables affecting behavioral/emotional self-regulation of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H. H., & Choi, K. S. (1992).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nd children's prosocial moral judge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6*(1), 33-47.
- Kim, B. S. (2011). The effec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the care of their children o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 Kim, E. H. (2009). Relationship among marital conflicts, co-parenting and a child's emotional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S. (2009).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clinging, parenting-efficacy and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6*(4), 203-226.
- Kim, J.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 Lee, J. H.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5), 245-261.
- Kim, J. S. (2000).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ccording to father's child rearing attitude and rearing invol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Y. (2007). The effects of preschooler's temperament, marital conflict and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on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E. (2011). Maternal depression, parental efficacy, and involvement in play and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8*(4), 1-17.
- Kim, K. H. (2000).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sychological life position and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 Kim, K. W., & Lee, I. S.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rearing involvement of fathers and children's social-emotion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2), 65-75.
- Kim, M. S. (2005).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among mothers: The case of those with preschoolers and school-ag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 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Krishnakumar, A., & Buehler, C. (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urs: A meta-analytic review. *Family Relations*, 49, 25-44.
- Kwon, H. K. (2009). The relation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the care of their children, mother's parenting behavior,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of children.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3(4), 79-98.
- Lamb, M. E. (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ors on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 245-257.
- Lee, C. R., & Moon, H. J. (2011). Relationship of children's peer play behavior and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nd mother's perception of the father participation. *Journal of Human Science*, 31(1), 66-91.
- Lee, J. S. (2003).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childrearing stress.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3(3), 5-19.
- Lee, J. S., & Jung, O. B. (2002).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Relationships with parent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1), 18-35.
- Lee, K. S., Shin, E. J., Jeon, Y. J., & Park, J. A. (2004). The characteristics of behavior problem among young children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4), 53-73.
- Lee, S. H., & Han, E. J. (1998). A study on paternal role-behavior of married men.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2), 23-39.
- Lee, S. M., & Min, H. Y.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child-rearing stress. *Korea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6(2), 219-225.
- Lewis, M., & Feiring, C. (1981). Direct and indirect interactions in social relationships. In L. Lipsitt. (Ed.), *Advances in infancy research: Vol. 1.* (pp. 129-161). Norwood, NJ: Ablex.
- Leve, L. D., Kim, H. K., & Pears, K. D. (2005). Childhood temperament and family environment as predictor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trajectories from ages 5 to 17.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5), 505-520.
- Luster, T., & Kain, E. L. (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 301-311.
- Meunier, J. C., & Roskam, I. (2009). Self-efficacy beliefs amongst parents of young children: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18(5), 495-511.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Moon, H. J. (1999). A study of variables related to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11), 91-101.
- Moon, H. J. (2000). Parental disciplinary practices as predictors of peer accepta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7), 39-52.
- Nam, J. H.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mother's parent-efficacy, parenting style

- and adolescence's self-regulation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E. S. (2012). Relations among coparenting,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toddler's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H. S. (2011). Relations of mothers' personality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toward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J. Y. (2013, July, 19). I am Friendly... Global movement to be good father. *Kyunghyang Shinmun*, Retrieved July. 19, 2013,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92140175&code=940100.
- Park, J. Y. (2013). The effects of child's temperament, mothers' parenting behavior, temperament-parenting goodness of fit on child's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M. L. (2011).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peer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Y. (2006).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efficacy on children's self-efficacy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e, R. D. (1994). Progress, paradigms, and unresolved problems: A commentary on recent advances in our understanding of children's emo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57-169.
- Parke, R. D., Power, T. G., & Gottman, J. M. (1979). Conceptualizing and quantifying influence patterns in the family triad. In M. E., Lamb, S. J. Suomi, & G. R. Stephenson. (Eds.), *Social interaction analysis* (pp. 231-253).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Parker, J.,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hip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rry, D. G., Perry, L. C., & Rasmussen, P. (1986). Cognitive social learning mediators of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7, 700-711.
- Pleck, J., & Masciadrelli, B. (2004). Paternal involvement by U.S. residential fathers. In M.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4th* (pp. 222-271). New York: Wiley.
- Rinaldi, C. M., & Howe, N. (2012).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yles and associations with toddler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daptive behavi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2), 266-273.
- Roopnarine, J. L., Krishnakumar, A., Metindogan, A., & Evans, M. (2006). Links between parenting styles, parent-child academic interaction, parent-school interaction, and early academic skills and social behaviors in young children of English-speaking Caribbean immigrant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2), 238-252.
- Rydell, A. M., Berlin, L., & Bohlin, G. (2003).

-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adaptation among 5-to 8-year-old children. *Emotion*, 3, 30-47.
- Salonen, A. H., Kaunonen, M., Åstedt-Kurki, P., Järvenpää, A., Isoaho, H., & Tarkka, M. (2009). Parenting self-efficacy after childbirt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11), 2324-2336.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Seo, H. L., & Lee, Y. (2008). The effect of maternal attitude toward child'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on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2), 33-56.
- Seo, H. Y., & Lee, S. H. (1999). The relations of work - Father role conflict with parent satisfaction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4(2), 257-280.
- Sevigny, P. R., & Loutzenhiser, L. (2009). Predictors of parenting self-efficacy in mothers and fathers of toddler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6(2), 179-189.
- Shields, A. M., & Cicchetti, D. (1995, March). *The development of an emotion regulation assessment battery: Reliability and validity among at-risk grade-school children*.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06-916.
- Shin, H. W. (200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Rating Scale(S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Son, M. G. (2005). An empirical study on unpaid work time of dual-earner couples: Focusing on statistics from lifetime use survey. *Korea Women's Studies Institute*, 5, 239-297.
- Song, E. J. (2011). Changes in parental time spent with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y Society*, 34(2), 45-64.
- Song, M. H., Song, Y. S., & Kim, Y. J. (2007).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elf-efficacy in early childhood mothers.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0(12), 165-183.
- Sung, J. H., & Baek, J. H. (2011). Validation of the Echelle Globale du Sentiment de Competence Parentale(EGSCP) in Korea: A measure of domain-specific self-efficacy and related cognitive constructs for par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4(4), 135-150.
- Twenge, J. M., Campbell, W. K., & Foster, C. A. (2003). Parenthood and marital 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574-583.
- Volling, B. L., & Belsky, J. (1991).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2), 461-474.
- Yang, E. H., & Choi, H. S.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self-efficacy of preschooler mothers. *The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16), 211-230.

Yang, O. S. (2006).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rating scale for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3(2), 161-182.

Yoon, H. K. (2010). Effects of the father's emotional empathy and involvement in child-rearing on the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May 31, 2014

Revision received August 8, 2014

Accepted August 9, 2014